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F.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다. 80대 노인의 몸으로 태어나 나이를 먹으면서 젊어지는 벤자민 버튼의 삶을 그린 이야기다. 허무맹랑한 소재이지만 인생과 시간의 의미를 되돌아 보게 하는 수작이다.

때마침 사전검열 논란
일찌감치 취재진이 찾지만 때마침 사전검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문화재단의 간부가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던 군부독재의 망령이 도래한 것이 아니다"는 글을 올리며 반발한 것이다.

다인 제작한 '납을 위한 행진곡'이 특별공연으로 선보였다. 일정상 1시간20분짜리 공연을 20분으로 압축했지만 5·18의 아픔을 댄스퍼포먼스로 표현해 중국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문화광주'의 시제는 거꾸로 간다

의 예산을 들인 공연이 너무 폭력적이다"며 "대책"을 지시했다. 시가 '예산만 축내는' 문화재단의 공연들을 손보려고(?) 그대로인 브랜드공연 제작협의회를 내놓는 셈이다.

그러나 오는 12월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대미술관 유치는 재선을 노리는 강 시장으로서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계의 표심을 노렸지만 강 시장의 발언은 신중치 못한 처사다.

이젠 '행정의 품격' 갖춰야

그러나 더욱 황당할 일은 강 시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원장과 행정부시장과의 모임에서 벌어졌다. 전담 콘텐츠와 관련해 시의 협조를 요청하는 이 원장을 향해 행정부시장은 "전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엉망인데 콘텐츠를 만들면 뒤흔나"고 면박을 준 것이다.

유치한다고 해도 이는 전담의 컨셉과 맞지 않다. 전담은 비(非)서구적 접근 방식의 콘텐츠가 다양한 예술품과 뒤엉켜 새로운 개념의 예술이 채워지는 미래 지향적인 공간이다.

이젠 '행정의 품격' 갖춰야

그러나 더욱 황당할 일은 강 시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원장과 행정부시장과의 모임에서 벌어졌다. 전담 콘텐츠와 관련해 시의 협조를 요청하는 이 원장을 향해 행정부시장은 "전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엉망인데 콘텐츠를 만들면 뒤흔나"고 면박을 준 것이다.

시 실

정치가권이 불을 지른 대중교통 '이해 충돌'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여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국 버스업계까지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22일 0시부터 버스 운영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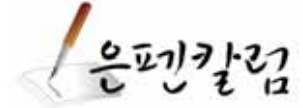
광주·전남, 외국 관광객 외면 이유는가

광주·전남의 외국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국 관광객 연 1000만명 시대에 돌입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10만 명이 찾는 정도로 저조하다는 데 있다.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도 상정돼 삼임위에서 논의가 됐으나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하자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지원을 약속하면서 되살아난 것이다.

문화광주

다인 제작한 '납을 위한 행진곡'이 특별공연으로 선보였다. 일정상 1시간20분짜리 공연을 20분으로 압축했지만 5·18의 아픔을 댄스퍼포먼스로 표현해 중국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김창연

향간의 유머 중에 '5대 억지 주장'이 있다. 그 중에 '청남대'를 대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지만, '오악새'가 새라고 하고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것이 포함된 것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창의적인 게릴라를 위하여

말이다. 또한 '백조는 하얀색'이라는 명칭(明證)해 보이는 결론도 검은 백조가 발견됨으로써 오류임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집을 가리키는 '반점(飯店)' 앞의 상자로 '몽고'가 붙어서는 안 되고, 어릴 때 나타나는 푸른색 반점인 '몽고반점(蒙古斑點)'으로만 생각을 고정시켜야 되는가 싶다.

면에는 기존 질서를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었다. 성공한 기업가를 바라보는 부모의 기대를 버리고, 기존 아이들과는 차별화된 자신의 길을 걸어나다. 짜이팅 '창의적인 게릴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기고



박봉기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교사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진로진학담당 교사들은 진로진학에 관련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하고 심지어는 학원 강사에게 수시 전형 수업을 듣는 현상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진학은 성적순이 아니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사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학능력고사에서 광주는 여전히 상위 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률은 성적 대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과와 비교과의 학생부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눈속전형에서는 규칙성을 찾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인문계의 경우 1학년부턴 눈속 준비가 이루어져야 유리하며, 자연계 학생의 경우 수학과 과학의 배경 지식이 이수된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無等鼓

1976년 5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와 미국 와인의 자존심이 걸린 시음 대회가 열렸다. 영국인 와인 도매상 스티븐 스프리어가 주도한 이 대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와인의 원조 프랑스산 포도주와 신대륙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포도주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인 시음은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생산과 명성 확대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직 대통령 주와 신대륙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포도주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블라인드 테스트



엔론에 '파리의 심판(Judgment of Paris)'으로 대서 특필된 이 대회는 프랑스산 와인의 정통성과 고품격을 확인하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프랑스산 와인에 긴 거품이 확인되고 미국산 와인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인스턴트 길들여진 아이들, 전통음식과 더 친해지게 하자

며칠 전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도와 주러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반장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스턴트 식품인 소시지와 햄 종류에 손이 많이 갔다. 그런 건 더 달라고 식판을 들고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버거, 피자, 치킨, 햄 등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쉽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에 좋은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전통음식은 잘 먹지 않으면서 아예 밥과 반찬 대신에 라면, 빵, 스파게티로 식사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의 이런 식습관은 비만과 소아 당뇨 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물 같은 전통 반찬은 아예 차취를 감춰버릴까 걱정된다. 정부와 학교가 나서서 전통음식의 중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편장이나 김치 같은 우리 전통음식을 멀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민수, 노철주, 김복남, 편집국장 최광호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 광주광역시 등주국민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